

2015년 7월 6일 새벽 정리 말씀

네, 할렐루야! 다시 한 주일이 시작되면서, 월요일 새벽을 맞았습니다.
이번 주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큰 사람이 깨닫는 것하고 어린아이가 깨닫는 것이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저 사람이 어린아이인지 큰 사람인지 압니다.

“나이를 치지 마라. 나이 칠 것도 없다. 깨닫는 것을 처라. 그리고 행동한 것을 처라.”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어떤 자라도, 미인이 되었든, 아무리 주가 채기든, 관심을 갖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것이다.” “안 하면 못 받는 것이다.”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고통 받는 곳에 가면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대로 받고, 어른은 어른대로 받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너,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배짱을 부리느냐? 네가 뭐 그리 잘난 것이 많으냐? 인물이냐? 재벌이냐? 명예냐? 뭐가 있다고 그러지? 그것은 너의 심리적인 것이지. 너 스스로 그렇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온전히 하늘 앞에, 섭리에 돌아올 때 까지다.”

“만신창이만 된다. 네가 온전히 하나님께, 시대에 돌아오도록 하라.”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할 때 말씀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 들어놓고 본문말씀을 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며 ‘아, 어른들도 있어야 되는데.’ 했지만, 결국 시대를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어른들이 생겼습니다. 나이 먹고.

섭리역사에 애들이 커서 결혼해서 어른 되어서, 지금은 40대가 있습니다. 50대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전도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생긴 것입니다. 커서!

그래서 옛날에 예수님이 “그냥 가라. 이들이 크면 장년부가 되는 것이다. 그들 데리고 와서 장년부 만들려고 하지 마라.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내 생각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기독교에서 어른들이 100% 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희망으로 뛰었는데,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다릅니다. 이와 같이 내 생각과 너희들 생각은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뜻대로, 늘 내가 하는 대로 하라. 그래야 일이 되지, 안 된다.”

작은 일도 내가 끼어들어야 되지, 안 끼어들으니까 안 해집니다. 안 해지더라는 것입니다.

큰일도 내가 끼어들면 해집니다. 아무리 커도. “그래서 내가 끼어들게 하라.”

왜 그런가 하니, 오늘 말씀대로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누가? 하나님이 보낸 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왜? 그가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속을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같이 살아야 알아요. 나와 같이 살아봐야 내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인데 왜 신같이 안 보느냐? 신인데! 말씀 받으면,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신이다.”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가 실행하도록, 실행권을 가지고 있

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역사가 가게 되어 있다.”

지금도 이야기하다가 또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입니다. 이야기하려다가 잊어 버렸습니다. 잊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다른 것 밖에 못 합니다.

써놓았는데도 모릅니다. 잊어 버렸습니다. 그냥 가야 됩니다. 묵시를 받으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달려가면서 빨리 외쳐라. 들은 것을.” 하신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빨리 외쳐야지, 뒀다가 외치면 잊어버린다. 그리고 지나가 버리니까.”

그때 못 하면 못합니다. “그때 하라!”

하나님께서 왜 전지전능하신고 하니 하나님은 제때에 하십니다. 제때 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십니다. 제때에 꼭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 내가 실행하리라. 이는 내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해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실행하리라.”

“내가 지금 말할 때 아침에 기도하던 것, 대화하던 것을 잊어버려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하오니 나로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라는 것은 이렇게 가고 있다.”

말씀이 왔습니다. 들어보세요. 잊어버렸던 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구시대 사람이 와서 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펴는 것이다. 내가 아침에 말하지 않았느냐. 구시대 사람이 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는 새로운 시대에서 편다. 너희가 구시대 사람이 오기를 기도했는데 안 왔지 않느냐?”

그래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들이 산다는 말을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살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어른이 돼서 굳건하게 큰 거목들이 되는 것이다. ‘성지 땅에도 어린 나무들을 길러라. 이것이 큰 거목들이 된다.’ 해서 기르니까, 15년 이상 되니까 한 아름씩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역사라는 것은 반드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사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다고 함부로 보지 말라.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이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실행하리라.”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세계로 계속 새로운 사람들이 어리든지 주인공이니까 그들을 함부로 보지 말고 크게 보아라. 주인공이니까 그들을 귀하게 보아라.”

이래서 우리는 이제 후반기입니다.

후반기는 또 후반기의 새로운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들이 되어서 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라는 것은 역사이기 때문에 빨리, 많이 안 큼니다. 사람이 성장하듯이 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명령에 따라 그렇게 살면서 자꾸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교육시켜서 보내 줬지 않았습니까? 그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그 단계에 가야 그 단계 말씀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단계의 삶을 사니까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그 단계, 하나님적 차원에 거기까지 가서 인간으로서 그 대열에 서 있어야 그 음성이 들립니다. 선생님 단계까지 와야 나의 말한 것이 들어갑니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는, 새로운 세계로 하나님이 역사를 간다.”

나도, 선생님도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시키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시키는 대로 그대로 가야 그 시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행한다. 하나님이 즉시 실행한다. 구하라. 그러면 즉시 실행하리라. 왜? 나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 그 영광을 아버지께서 받으신다. 신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시키는 대로 하라.”

“네, 네.” 하지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역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실행하리라.”

“즉시 실행해서, 즉시 실천하라. 그러면 내가 실행하리라. 즉시 실행하리라. 즉시 내가 실행할 테니까.”

즉시 실행하는 원인은 즉시 안 하면 안 됩니다. 기회를 놓칩니다. 선생도 즉시 안 하면 때를 놓칩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눈을 떴을 때 즉시 일어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즉시 실행하라. 영감 왔을 때, 때가 되었을 때 즉시 실행하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즉시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애간장 태우지 않고 즉시 실행할 테니까 즉시 실행하라.”

오늘 말씀은 “즉시 실행하자.”입니다. 즉시 실행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전도한 사람들도 즉시 실행했으니까 전도가 된 것입니다. 이들을 잘 길러서 역사에 끌고 가자고요.

우리 전체가 딱 한 달에 한 명씩만 하면 그냥 엄청난 인원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맨날 그 인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즉시 실행하십시오. 알겠습니까? 왜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각 교회들이 전도할 때 권위 있게, 이치에 맞게, 슬기 있게, 재치 있게, 그리고 조직적으로 전도하라! 그러면 일이 잘 될 수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기 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한 것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금주 말씀도 전해 주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얻게 해 주시고, 능력과 권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육신도 건강, 영혼도 건강하여 힘차게 일하게 해 주시고, 사고와 해됨이 없게 지켜 주시옵소서.

아픈 자에게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오니 건강해지고, 치료되고, 강건해 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손을 얹어 만군의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이들 영혼이 병든 자들이 즉시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신도 마귀도 나가고, 사망권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의 역사는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역사를 펴니, 이 역사를 지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열심히 뛰라고 했습니다. 즉시 실행해 주시고, 즉시 실행케 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과, 주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이들 위와 온 지구촌에 있는 각 나라, 각 민족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항상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